

企劃論文

문화·역사지리학에서 지역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 치 영*

I. 머리말	V. 맺음말: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
II. 지역문화 연구와 문화·역사지리학	<참고문헌>
III. 서구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지역문화 연구	<국문요약>
IV. 우리나라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지역 문화 연구	

I. 머리말

지역문화는 ‘지역’과 ‘문화’가 결합된 말로, “인간이 일정한 지역에 정착해 오랫동안 사회를 이루고 살아오면서 습득·공유·전달해 온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지역문화는 지역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계는 물론 일반사회에서도 이러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 세계화라는 현대사회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상호교류와 상호의존도가 빠르게 강화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화는 탈영역화, 등질화, 기능적

통합 등의 속성을 지녀, 일반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 지역 간의 등질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¹⁾ 그러나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과정 속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생성되고 독특한 지역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즉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의 중요성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개념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지방화 또는 지역화라 한다. 이렇게 세계화와 연속선상에서 이해되는 지방화는 지역문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과거에는 고립되어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던 지역문화가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실시간으로 세계 전역에 알려져서 세계적인 것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발전전략과 맞물려 지역문화가 새롭게 주목되었다.²⁾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발전의 매개체로 장소의 브랜드화, 장소마케팅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때 장소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화는 상품화와 산업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³⁾ 다시 정리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 장소의 가치를 높이려는 지방정부의 노력 속에서 장소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지역문화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지역문화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문화정체성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정체성은 다른 문화와의 차별화, 즉 자신의 문화에서 ‘자기다움’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확립·강화된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문화의 기저를 이루는 지역문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근래 들어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역문화가 지닌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성격 때문에 지역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은 다양하다. 전통적으로 지역문화에 대해 연구해 온 학문분야는 역사학·민속학·사회학·인류학·지리학 등이며, 이들 각 분야는 나름의 관점과 주제, 그리고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

- 1) 최재현,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8권 2호(2005), 1~2쪽.
- 2) 고석규, 「한국학과 지방학」,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국학연구소 제1회 학술심포지움: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림대학교, 2005. 2. 16, 82쪽.
- 3) 이희연, 「세계화시대의 지역연구에서 장소마케팅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8권 2호(2005), 36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센터 조교수, 역사지리학 전공(cyjung38@aks.ac.kr).

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지역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 분과학문에 매몰되지 않고 분야를 넘나드는 학제적 연구, 더 나아가 통합적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들과 얽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는 통합과학의 이념이 한 지역의 총체적인 삶의 양식을 다루는 지역문화 연구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것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학제적·통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문화 연구와 관련된 각 분야의 학문적 전통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자들의 상호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문화 연구에 있어 다른 학문은 주로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학제적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착안점에서 출발한 이 논문은 지리학, 그중에서도 문화·역사지리학과 지역문화 연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국내외 문화·역사지리학계에서의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 동향과 방법론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문화 연구에서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리학이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지역, 지역성과 관련해 살펴보고, 문화·역사지리학의 학문적 성격과 지역문화 연구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구의 문화·역사지리학에서 근대지리학이 성립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역문화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지역문화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이를 토대로 하여, 문화·역사지리학이 지향해야 할 몇 가지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II. 지역문화 연구와 문화·역사지리학

1. 지역, 지역성과 지역문화

앞서 정의하였듯이, 지역문화는 지역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이다. 이와 같이

4)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있다. 전경수, 「지역연구의 방법을 위한 인식기초」, 최협(편), 『인류학과 지역연구』(나남출판, 1997), 35~44쪽; 김경일, 「지역연구 대상과 방법 및 쟁점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협(편), 위의 책, 45~88쪽; 김희순, 「지역연구의 특성과 지리학과의 관계」, 『대한지리학회지』, 제35권 2호(2000), 243~258쪽; 이해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문화닷컴, 2001), 13~15쪽.

지역문화에서 지역이 가진 의미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지역문화 연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이 가진 함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은 지리학의 기본 개념이다. 지리학에서는 지역을 어떤 동질성을 가진 지표의 범위라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지표상의 각 장소가 가진 속성을 통해 공간을 구분한 것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역은 내부적으로 고유한 공통의 성격을 지니나, 주위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⁵⁾ 이러한 지역의 규모는 고장으로부터 지방·국가·대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상호 계층적인 관계에 있다. 지역은 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인데, 역사학에서 ‘시대’로 시간을 구분하듯이 지리학은 ‘지역’으로 공간을 구분하며, 이를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무엇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리학자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중요한 숙제였다. 일례를 들면, 미국의 지리학자 휘틀지(Whittlesey)는 지표가 되는 속성의 숫자에 기초하여 지역을 단일지표지역, 복합지표지역, 전체지역으로 구분하였다.⁶⁾ 가장 간단한 단일지표지역은 하나의 사상(事象)을 이용해 지역을 나누는 것으로, 예컨대 종교를 통해 지역을 나누는 종교지역이 있다.⁷⁾ 복수지표지역은 두 가지 이상의 사상을 이용하여 지역을 구분하는 것인데, 기온과 강수량의 두 가지 지표를 결합하여 지역을 구분한 기후지역이 좋은 예이다. 한편 전체지역은 여러 가지 자연적 지표와 사회문화적 지표를 결합해 인간의 거주공간을 고도로 복합적인 관점에서 구분한 것으로,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⁸⁾

그래서 지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개념이 지역성(regionality)이다. 지역성은 “지역적 성격 또는 특성”을 줄인 말로, 각각의 지역이 가진 종합적인 개성이라

5) 中村和郎·手塚章·石井英也, 『地域と景觀』(古今書院, 1991), 109쪽.

6) Whittlesey, D., “The Regional Concept and the Regional Method,” James, P. E. and Jones, C. F.(ed.),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Syracuse, N. Y.: Syracuse Univ. Press, 1954), p. 35.

7) 예를 들어, 사람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종류에 따라 어떤 지역을 기독교지역, 불교지역, 이슬람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8) 中村和郎(외), 앞의 책(1991), 110쪽; 高橋伸夫·田林明·小野寺淳·中川正, 『文化地理學入門』(東洋書林, 1995), 47~48쪽.

할 수 있다.⁹⁾ 지역성은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사상들, 즉 지형·기후·토양 등 자연요소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문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밝혀내면 지역구분의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리학자들은 연구대상인 지역의 지역성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왔다. 지역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과거에는 지역 내부에서 지역을 구성하는 자연 및 인문사상들이 서로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만 이해하였으나, 최근에는 개방체제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간의 상호작용도 지역성 형성의 중요한 동인으로 본다. 그리고 지역성은 최근의 세계화·지방화의 물결 속에서 더 강화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제 지역문화, 지역, 지역성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먼저 지역문화는 지역을 토대로 형성되며, 지역 차이를 만드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지역의 차이는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성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지역문화는 지역성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며, 역으로 지역성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것이 지역문화이기도 하다. 즉 지역문화와 지역성은 상호호환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곧 지역성을 연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지역, 지역성, 지역문화의 관계 때문에 지리학자들은 일찍부터 지역문화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다.

2. 문화·역사지리학과 지역문화 연구와의 관계

문화·역사지리학과 지역문화 연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역사지리학과 이를 포함하는 지리학 전반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지리학은 지표면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다루는 매우 광범위한 학문이며, 지역지리학과 계통지리학으로 대분된다. 지역지리학은 특정한 지역의 자연 및 인문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대륙별로는 아시아지리, 유럽지리, 아프리카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가별로 한국지리, 중국지리, 일본지리 등으로 나눌

9) 日本地誌研究所(刊), 『地理學辭典』(二宮書店, 1977), 458쪽.

수도 있다.

한편 계통지리학은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지리학과 인간과 관련된 현상을 다루는 인문지리학의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¹⁰⁾ 이는 다시 어떤 주제를 취급하느냐에 따라 세분되며, 연구주제에 따라서 여러 인접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자연지리학 중 지형학은 지질학, 기후학은 기상학과, 인문지리학 중 역사지리학은 역사학, 사회지리학은 사회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지리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과학의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종합과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문화·역사지리학은 계통지리학, 그중에서도 인문지리학에 속한다. 먼저 문화지리학은 말 그대로 문화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리학인데, 문화의 개념을 협의로 하느냐, 광의로 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영역이 달라진다. 독일의 문화지리학은 광의의 문화개념을 토대로 발전하여 인문지리학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나, 미국의 문화지리학은 독일보다 좁은 연구영역을 설정하여,¹¹⁾ 언어, 종교, 지명, 민속 등과 문화경관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¹²⁾ 사실 이와 같은 문화현상들을 탐구하는 학문은 문화지리학 외에도 인류학·역사학·사회학·민속학 등이 있으나, 문화지리학은 문화현상들의 공간적 차이를 연구한다는 점과,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자연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학문분야와 구분된다.¹³⁾

한편 역사지리학은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지리학”으로,¹⁴⁾ 과거의 지표현상을 연구하여 현대와 과거를 구분하지 않고 지표 그 자체와 지표에 전개되는 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¹⁵⁾ 이 때문에 역사지리학의 연

10) 이와 같이 지리학이 지역지리학과 계통지리학으로 구분되고, 계통지리학이 다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세분되는 것을 지리학자들은 ‘이중적 이원성(double dualism)’이라 부른다. 이러한 이중적 이원성은 지리학의 고유한 성격이지만, 지리학이 가진 딜레마의 원인이기도 하다.

11) 류제현, 「한국 문화·역사지리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제31권 2호(1996), 256쪽.

12) Norton, W., *Explorations in the Understanding of Landscape: A Cultural Geography*(Westport: Greenwood Press, 1989), pp. 3-5.

13) Jordan-Bychkov, T. G. and Domosh, M., *Human Mosaic, 9th ed.*(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2003), pp. 3-4.

14) Johnston, R. J., Gregory, D. and Smith, D.(ed.),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Oxford: Blackwell, 1986), p. 194.

구 범위는 인문지리학이 다루는 모든 주제는 물론 과거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등의 자연지리학의 영역까지 걸쳐 있다. 그래서 영국·미국·일본 등의 지리학계에서는 연구 주제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역사적 방법론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의 집합을 역사지리학이라 불렀다. 역사적 방법론은 현재의 응용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으면서 과거 어느 한 시기의 상황이나 장기간의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에 많이 적용하는 방법론으로, 현재의 상황이나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는 분야에 많이 사용하는 계량적 방법과 대비된다.¹⁶⁾ 이 같은 방법론 뿐 아니라 연구자료 면에서도 역사지리학은 역사학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다만 역사지리학은 과거와 관련된 지역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¹⁷⁾ 역사학과 차별성을 지닌다.

이상과 같이 문화지리학과 역사지리학의 영역은 국가별로 다르고 시대에 따라 서로 조금씩 변화해 왔다. 그러나 국가와 시대에 관계없이 문화지리학과 역사지리학은 지리학 내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것은 연구주제와 방법론에서 공통점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화경관’은 문화지리학과 역사지리학이 공유하는 중심 연구주제였다. 후술하겠지만, 미국 문화지리학을 주도한 버클리학과는 문화경관을 통해 문화의 공간적 변이의 기원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역사지리학이라 주장하였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역사지리학의 방법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바로 문화지리학이다. 왜냐하면 문화지리학은 문화현상의 발생에 이은 공간적 전파와 확산 등 문화의 변화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과정의 규명은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창기부터 문화지리학과 역사지리학이 서로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연구주제와 방법론을 공유해왔다.¹⁸⁾

15) 有蘭正一郎・遠藤匡俊・小野寺淳・古田悦造・溝口常俊・吉田敏弘, 『歴史地理調査ハンドブック(東京:古今書院, 2001), 1~2쪽.

16) 류제현, 「문화·역사지리학」,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대한민국학술원, 2002), 62쪽.

17) Baker, A. R. H., “On History and Geography and their ‘Bastard’ Child Historical Geography, and on its Relationship to Geohistoric and to Geographical History,” 『人文地理』, 54卷 4号(2002), 24쪽.

18) 우리나라에는 지리학의 세부 분야별로, ‘경제지리학회’, ‘도시지리학회’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지리학과 역사지리학의 연구자들은 ‘문화역사지리학회’라는 하나의 학회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문화지리학과 역사지리학, 그리고 여기에 지리학사를 합쳐 하나의 통합된

지금까지 문화·역사지리학의 전반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 실태를 파악하여 그 지역적 다양성을 밝혀내고,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의 형성과정과 요인을 해명하는 것을 주된 연구과제로 삼는 문화지리학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과거를 복원하고자 하는 역사지리학에서도 지역문화는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문화·역사지리학자들은 지역문화의 연구를 통해 지역마다의 지역성을 규명하여 지역 간의 차이점과 지역 상호간의 연계성을 밝히려 노력해 온 것이다.

III. 서구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지역문화 연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리학은 서양의 지리학이다. 서양의 지리학사에서는 지리학의 발달과정을 크게 고전지리학, 근대지리학, 현대지리학의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이때 고전지리학은 고대 그리스부터 18세기 전반까지의 지리학을, 근대지리학은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를 말하며, 이를 합쳐 전통지리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대지리학’은 대개 2차 대전 이후의 지리학을 말한다.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리학의 성립시기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는 여행가나 탐험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탐험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 지역의 문화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지리학자에 의한 지역문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근대지리학이 성립된 이후의 일이었다. 근대지리학의 문을 연 사람은 독일의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와 리터(C. Ritter: 1779~1859)였으며, 이들의 영향으로 19세기 이후 지리학 발달을 주도한 나라는 독일이었다.

한편 문화·역사지리학이 언제부터 지리학의 독립된 분야로 발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며, 그 정의와 영역에 대해 논란이 많은 역사지리학은 더욱 그러하다.¹⁹⁾ 그러나 문화지리학은 독일의 지리학자 라첼(F. Ratzel: 1844~

분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이도 적지 않다.

19) Bultin, R. A., 『Historical Geography: Through the Gate of Space and Time』(London: Edward

1904)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는 지역 간의 문화 차이가 자연환경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전통과 그 전파에 의해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하였으며,²⁰⁾ 지역문화 연구를 중시하는 ‘향토학(Heimatkunde)’을 주창하였다. 그는 촌락이나 농경지, 도시의 교회·성 등으로부터 독일인의 정신이 깃든 경관의 특징을 찾아내려고 하였다.²¹⁾ 그렇지만 라첼은 자연환경이 문화 또는 문화경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환경결정론의 창시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결정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학자 중에 프랑스의 블라쉬(Vidal de la Blache: 1845~1918)와 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비달학파가 있다. 비달 학파는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지역문화 연구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는데, 그들은 인간의 생활양식이 자연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규범에 따라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²²⁾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역문화는 지역 주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발전시켜 온 ‘생활양식(genre de vie)’이며, 지역성을 규정하는 지표였다. 그래서 비달학파는 문화적·역사적 배경과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이 거주하여, 이러한 ‘생활양식’이 잘 나타나는 소규모 지역인 ‘향토(pays)’가 지리학의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²³⁾ 방법론 면에서는 세밀한 야외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한 귀납적이고도 역사적인 방법을 선호하였다. 이 때문에 비달학파는 도시 보다는 농촌, 그리고 물질문화 연구에 치중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지역모노그래프(regional monographs)의 성격을 가졌다.²⁴⁾ 이러한 경향은 프랑스 역사학의 아날학파(Annales School)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슬뤼터(Otto Schlüter: 1872~1959) 역시 환경결정론에 반대하며, ‘경관

Arnold, 1993), pp. 1~40.

20) Martin, G. J. and James, P. E., *All Possible Worlds: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3rd ed.(New York: John Wiley & Sons, 1993), pp. 168~171.

21) 水津一朗, 『近代地理學の開拓者たち』(地人書房, 1988), 105쪽.

22) 권정화, 『지리사상사 강의노트』(한울, 2005), 106~107쪽.

23) ‘pays’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 표현이 쉽지 않다. 학자에 따라 ‘지역’, ‘향토’, ‘고장’, ‘등질지역’, ‘지방’ 등으로 번역한다.

24) 藤原健藏(譯), 『地域研究法』(朝倉書店, 1997), 32~33쪽.

론(Landschaftskunde)’의 관점에서의 지역문화 연구를 주장하였다.²⁵⁾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치인 ‘가시적 경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자연경관’이 인간의 활동을 통해 ‘문화경관’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경관론은 미국의 사우어(Carl. O. Sauer: 1889~1975)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사우어는 자연경관이 문화과정에 의해 변형된 결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형태를 ‘문화경관’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인구·가옥·경작지·도로 등의 요소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유기체적 총합이 바로 문화경관인 것이다. 따라서 사우어는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문화과정’을 밝히는 것이 지역문화 연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였다.²⁶⁾

1950년대까지 반세기 가까이 북미 문화지리학을 이끈 사우어와 그의 제자들을 버클리학파라 하는데, 이들의 연구 성과는 1962년에 발간된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라는 책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그들의 연구주제는 크게 문화지역, 문화전파, 문화경관, 문화생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은 언어·종교·지명·농작물·가축·경지패턴·인구이동·음식물·촌락형태 등 매우 다양하였다.²⁷⁾ 한편 버클리학파의 지역문화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역사를 중시하였다. 지리적 현상의 역사적 변화와 그 변화를 이끈 과정에 관심을 지니며, 변화과정으로써 문화전파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물질문화를 중시하였다. 눈에 보이는 경관요소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촌락 형태, 가옥, 농경지, 묘지 등을 조사하여 분류·지도화하고, 이를 통해 문화지역의 설정을 시도하였다. 셋째, 이론 보다는 현지조사를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지식은 물론, 자연지리적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요소들의 관련성을 논리적·직관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이 필요하였다.²⁸⁾

북미의 지리학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지리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記述)에 관심을 두는 과학이 아니라 법칙을 추구하는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

25) 기쿠치도시오(자)/윤정숙(역), 『역사지리학방법론』(이화, 1995), 57쪽.

26) 한국지리연구회(편),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민음사, 1993), 75쪽.

27) Wagner, P. L. and Mikesell, M. W.,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p. 25~560.

28) 高橋伸夫(외), 앞의 책(1995), 23~25쪽.

다.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법칙정립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현대지리학이 정립되었다. 현대지리학의 문을 연 것은 실증주의 지리학으로,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계량적 기법을 이용하여 법칙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문화·역사지리학은 시대에 뒤쳐진 분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문화 연구도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역사지리학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연구가 꾸준히 발전하였는데, 그 대표주자는 다비(H. C. Darby: 1909~1992)였다. 그는 시간단면(time cross section)을 이용해 과거의 지역을 복원하여 서술하였으며,²⁹⁾ 영국과 유럽대륙에서의 삼림 개간, 독일에서의 중세 촌락 발달과 식민화, 영국에서의 저습지 개간과 인구이동 등과 같은 경관 변화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발표하였다.³⁰⁾ 1960년대 중반 이후 영국에서는 다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계량적인 기법을 도입하거나 다른 사회과학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³¹⁾

북미에서는 1970년대 들어 실증주의 지리학이 인간의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반동으로 지역문화 연구로의 환원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계통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지역의 전체적 특성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지역 연구는 단순한 사실의 수집·분류·제시가 아니라 종합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²⁾ 일례로, 하트(J. F. Hart)는 1981년 미국지리학회장 연설에서 학문적 분야가 심화되고 있는 계통지리학의 각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주제가 지역이며, 이러한 지역 연구를 위해서는 역사적 지식,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 이들과 연관된 인간행동의 동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지역문화 연구의

29) 시간단면이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흐름에 대하여 그것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절단면을 임의의 시점에 설정해서, 그 시점의 과거의 공간을 절단면 위에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꾸치도시오(자)/윤정숙(역), 앞의 책(1995), 282쪽.

30) Baker, A. R. H.(ed.), *Progress in Historical Geography*(Newton Abbot: David & Charles, 1972), pp. 93~105.

31) 전종한·류제현, 「영미 역사지리학의 최근 동향과 사회역사지리학」, 『문화역사지리』, 제11호(1999), 172쪽.

32) 이희연·최재현,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4호(1998), 560쪽.

방법론으로 야외조사를 통한 정밀한 관찰·측정·기록과, 분석의 도구로써 지도의 활용, 그리고 지역민들의 사고방식과 가치, 행동양식 등을 이해하기 위한 면담조사를 강조하였다.³³⁾

1970년대 이후 서구의 문화·역사지리학계에서는 다채로운 지역문화 연구가 시도되었다. 사회이론과 철학적 사고에 기반을 둔 여러 연구방법론이 도입되었을 뿐 아니라,³⁴⁾ 다양한 시간과 공간 스케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역사지리학에서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지역역사지리학(Regional Historical Geography)’이라는 분야가 발달하였다. 지역역사지리학은 지역의 형성과 변화에 관련된 과정의 분석에 연구 초점을 맞추는데, 지역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기술적 방법 뿐 아니라 계량적·동태적 분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1970년대에 서구의 지역역사지리학에서 이루어진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범위에서는 작은 하천 유역을 다룬 연구부터 유럽과 같은 대륙을 다룬 연구까지 있으며, 시간범위에서도 시간단면을 이용한 연구에서부터 선사시대에서 현재까지를 다룬 연구까지 다양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고문서 등 문헌자료와 현지조사의 결과가 가장 많았으나, 고고학적 자료를 사용한 연구도 있었다.³⁵⁾ 또한 최근에는 지역의 역사지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 성과들이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데,³⁶⁾ 그 대표적인 예로는 1494년부터 2000년까지의 500여 년에 걸친 북미대륙의 지리적 변화를 종합한 메이니그(D. W. Meinig)의 방대한 저작을 꼽을 수 있다.³⁷⁾

33) Hart, J. F., 1982, “The Highest Form of the Geographer’s Ar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2, No. 1(1982), pp. 16~25.

34)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에서는 특히 인간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이라 하여, 현상학·실존주의·관념론 등에 논리적 기반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권용우·안영진, 『지리학사』(한울, 2001), 224~246쪽; 藤岡謙二郎·南出眞助·出田和久·野間晴雄, 『新編歴史地理』(大明堂, 1994), 294~299쪽.

35) Norton, W., *Historical Analysis in Geography*(New York: Longman, 1984), pp. 62~69.

36) Baker, A. R. H., *Geography and History: Bridging the Divid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167~176.

37) 메이니그의 저작은 다음과 같이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Meinig, D. W., *The Shaping of America: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500 Years of History, Vol. I: Atlantic America, 1492~1800*(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Meinig, D. W., *The Shaping of America: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500 Years of History, Vol. II: Continental America,*

한편 문화지리학 분야에서는 1980년대부터 ‘산’문화지리학(New Cultural Geography)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신문화지리학은 기존의 버클리학파의 경관연구와 영국 사회지리학자들의 이론적인 배경이 혼합된 새로운 연구경향으로, 장소와 공간 속에 투영되어 있는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의 내재적인 의미를 밝히거나, 경관을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하여 경관의 정치적이고 사회적 의미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³⁸⁾ 예를 들어, 성, 계급, 민족 등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가 경관과 지역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반대로 경관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독해할 것인지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때 경관에는 물질적 경관 뿐 아니라 상징적 경관도 포함된다.³⁹⁾

IV. 우리나라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지역문화 연구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지리학과 역사지리학이 하나의 분야처럼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공유해 왔을 뿐 아니라, 학회 명칭에 있어서도 ‘문화역사지리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호칭은 초창기 우리나라의 문화·역사지리학을 이끈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이 역사적 접근을 주된 방법론으로 하는 미국의 문화지리학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실 문화·역사지리학 분야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출신학교를 보면, 대다수가 넓은 의미에서 앞서 살펴본 미국 버클리학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 역시 그들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보면, 영국의 다비학과와 미국의 버클리학파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⁴⁰⁾ 따라서 우

1800~1867(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Meinig, D. W., *The Shaping of America: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500 Years of History, Vol. III: Transcontinental America, 1850~1915*(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Meinig, D. W., *The Shaping of America: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500 Years of History, Vol. IV: Global America, 1915~2000*(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38) 박승규, 「문화지리학의 최근 동향: ‘산’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7호(1995), 131~139쪽.
39) Norton, W., *Cultural Geography: Themes, Concepts, Analyse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22~24.

리나라 문화·역사지리학의 지역문화 연구는 영미 문화·역사지리학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 문화·역사지리학에서 지역문화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⁴¹⁾ 이때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연구주제 별로 살펴보면, 영미의 지역문화 연구와 마찬가지로 물질문화와 경관과 관련된 연구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가옥, 촌락, 도시 등의 취락경관을 다룬 연구들이 많은데, 가옥에 관한 연구로는 중부지방의 민가 형태를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지역의 경계를 설정한 이찬의 연구와,⁴²⁾ 우리나라 각 지역의 민가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민가의 평면구조로 한국의 문화지역을 구분한 장보용의 일련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⁴³⁾

지역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촌락은 우리나라 문화·역사지리학의 가장 전통적인 연구 주제이다. 촌락에 대한 연구는 촌락의 형성 및 발달과정과 함께, 촌락의 입지·형태·구조·기능·경관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고찰이 이루어졌다. 그 대상이 된 촌락은 농촌(農村)·산촌(山村)·어촌(漁村)·동족촌(同族村) 등 다양한데, 우리나라 촌락의 보편적인 유형으로 꼽히는 동족촌에 대한 연구가 특히 많았다. 동족촌의 형성 및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족보·양안 등의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동족촌의 형성과정을 살핀 연구,⁴⁴⁾ 동족촌의 지역적 전개과정을 사회사적 맥락에서 탐구한 연구⁴⁵⁾ 등이 있으며, 경관에 대한 고찰로는 안동지방 동족촌의 경관 원형을 탐구한 연구가 대표적이다.⁴⁶⁾ 최근의 성과로는 충청도에서의 동족집단의 지역화과정을 생태적 정착단계, 경관 생산단계, 영역성 재생산 단계 등으로 나누

40) 류제현, 앞의 논문(2002), 59~61쪽.
41) 우리나라에서 문화·역사지리학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자신들의 연구가 문화·역사지리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소속감을 가진 연구자들이 드물었고, 연구 성과도 많지 않았다.
42) 이찬, 「중부지방의 민가 연구 개요」, 『지리학과 지리교육』, 4호(1975), 27~40쪽.
43) 장보용, 「제주도 민간의 연구」, 『지리학』, 10호(1974), 13~31쪽; 장보용, 「울릉도 나리동의 투방 집 연구」, 『지리학』, 16호(1977), 25~34쪽; 장보용, 『한국의 민가 연구』(보진재, 1981).
44) 양보경, 「반월면 사리 동족부락에 대한 연구」, 『지리학논총』, 7호(1980), 29~52쪽.
45) 최기엽, 「한국 촌락의 지역적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6).
46) 김덕현, 「씨족촌락의 형성과정과 입지 및 유교문화경관: 안동지방의 사족촌락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0호(1983), 241~251쪽.

어 분석한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⁴⁷⁾

농촌을 다룬 연구로는 한 지역의 농촌경관을 다루거나, 농촌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사적 맥락에서 규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⁴⁸⁾ 산촌에 대한 연구로는 태백산지 산촌의 입지·형태 등을 다룬 연구가 많았다.⁴⁹⁾ 어촌에 대한 연구로는 조선시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곶소만 어촌의 지역적 전개과정을 분석한 연구와, 천수만지역의 어촌 분포의 변화를 다룬 연구 등이 손꼽힌다.⁵⁰⁾

촌락에 비해 도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먼저 서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7개의 시간단면을 이용하여 조선 초 서울의 수도 선정과정과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수도로서의 정치·행정·공간적 발전과정을 추적한 연구와,⁵¹⁾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구조와 그 변화를 주요 시설물의 입지분석을 통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⁵²⁾ 그리고 장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진주의 역사적 경관을 해석한 연구,⁵³⁾ 신라 수도의 범위와 행정구역 등을 비정하고 그 지리적 배경을 해명한 연구⁵⁴⁾ 등이 도시 연구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미의 문화·역사지리학에서 많이 다루어 온 농업문화 역시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주제이다. 김기혁은 지리지와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조선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농업지대의 변화를 파악하였는데 조선후기 들어 벼농사의 확대와 농업기술의 지역적 확산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농업지역이 동질화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⁵⁵⁾ 정치영은 조선후기 농서인 『천일록(千一錄)』을 통하여 각 지역 농업문화의 지역성을 규명하였다.⁵⁶⁾ 농업경관과 관련해 최영준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짚가리의 구조와 형태를 조사하여 그 지역적 분포 양상과 확산 과정 등을 분석하였다.⁵⁷⁾

농업문화에 대한 연구 가운데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경지 개간을 다룬 것들이다. 농경지의 개간과정은 각 지역 나름의 자연 및 인문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강화도의 해안저습지 간척과정을 분석한 연구,⁵⁸⁾ 김만경평야의 개간과정을 고찰한 연구,⁵⁹⁾ 강릉지역의 저습지 개간을 다룬 연구,⁶⁰⁾ 영산호 주변 지역의 간척지 개간과정을 추적한 연구,⁶¹⁾ 지리산지의 농경지 개간을 분석한 연구,⁶²⁾ 득량만과 해창만의 간척과 그에 따른 지역의 변화상을 고찰한 연구⁶³⁾ 등이 농경지 개간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지역의 지역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상업과 교통 등의 주제를 통해 지역문화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나도승은 금강 수운을 연구하여 금강유역의 지역성을 고찰하였으며,⁶⁴⁾ 최영준은 남한강 수운이 역사·문화적으로 지역성 형성과 한반도의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규명하였고, 또한 전근대시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던 영남대로의 경관을 복원하고 도로 발달이 지역문화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⁶⁵⁾ 김재완은 19세기말 낙동강 유역의 소금 유통을 고찰하여 이 지역의 시장구조와 상품유통권을 밝혔는데, 그는 소금을 매개로 한 해안과 내륙의 문화교

47) 전중환, 『종족집단의 경관과 장소』(논형, 2005).

48) 류제현, 「농촌경관의 형태적 연구: 여주, 이천지방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6호(1979), 96~115쪽; 이문중,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8); 남궁봉, 「하천유역일대 간척지상의 간척취락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0).

49) 강대현, 「대관령부근의 산촌의 입지와 형태」, 『只山先生 화갑기념논문집』(1966), 9~20쪽; 오홍석, 「태백산지의 산촌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9호(1984), 141~164쪽.

50) 김일기, 「곶소만의 어업과 어촌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5(1988); 김부성, 「천수만 지역의 어촌 분포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8호(1996), 19~36쪽.

51) 임덕순, 「서울의 수도기원과 발전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5).

52) 이현균, 「조선시대 한성부 도시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53) 김덕현, 「역사 도시 진주의 경관해석」, 『문화역사지리』, 13권 2호(2001), 63~80쪽.

54) 이기봉, 「신라 왕경의 범위와 구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55) 김기혁, 「한국 농업지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10(1991).

56) 정치영, 「천일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농업의 지역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권 2호(2003), 119~134쪽.

57) 최영준, 『한국의 짚가리: 사라지는 민속경관의 문화지리적 해석』(한길사, 2002).

58) 최영준, 「강릉지역의 해안저습지 간척과 경관변화」,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 30호(1991), 261~306쪽.

59) 남궁봉, 「한국의 농지개간과정: 김만경평야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3권 2호(2001), 1~20쪽.

60) 이준선, 「강릉지역의 저습지 개간과정」, 『문화역사지리』, 10호(1998), 55~68쪽.

61) 김경수, 「영산호 주변의 간척지 개간과정과 경관변화」, 『문화역사지리』, 11호, 1999, 73~94쪽.

62) 정치영, 「지리산지의 농경지 개간」, 『문화역사지리』, 12호(2000), 57~76쪽.

63) 홍금수, 「득량만과 해창만의 간척지 개간」, 『문화역사지리』, 16권 3호(2004), 86~120쪽.

64) 나도승, 「금강 수운의 변천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논문집』, 16집(공주교육대학, 1980), 73~93쪽; 나도승, 「금강 수운 하행시장권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하행취락 성쇠를 중심으로」, 『논문집』, 17집(공주교육대학, 1981), 91~114쪽.

65) 최영준, 「남한강 수운 연구」, 『지리학』, 35호(1987), 49~82쪽; 최영준, 『영남대로: 한국 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류가 문화권의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⁶⁶⁾

우리 조상들의 주거생활, 나아가 자연관에 영향을 미쳐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풍수사상에 대한 연구로는 최창조, 이몽일, 최원석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최창조는 풍수이론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경, 한양 등 수도의 입지를 풍수적으로 해석하였으며,⁶⁷⁾ 이몽일은 풍수사상의 시대별 특성과 더불어, 풍수사상이 촌락의 입지와 형태에 미친 영향을 경북의 촌락들을 사례로 분석하였다.⁶⁸⁾ 최원석은 영남지방을 사례로 비보(裨補) 문화 및 경관의 양상을 탐구하였다. 그는 비보문화가 어떻게 기원하여 확산되었는지를 밝히고 비보경관의 형태와 기능 및 분포를 유형 별로 분석함으로써, 비보가 한국의 전통문화경관을 구성하는 주요한 기능적 요소임을 주장하였다.⁶⁹⁾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문화·역사지리학의 지역문화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주제 면에서는 촌락의 형성 및 변천과정, 경관의 변화, 경지 개간 등이 지속적으로 많이 다루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문화지리학’의 영향과 인접 분야와의 교류 속에서 사회집단이 지역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거나 경관을 통해 장소의 의미를 분석하는 등의 새로운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주제나 지역 면에서 더욱 전문화·세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90년대 이후 좀 더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지역의 형성과 변화에 관련된 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서구의 ‘지역역사지리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이러한 연구는 류제현, 옥한석 등이 먼저 시도하였다. 류제현은 문화생태학의 이론과 방법을 활용하여 호남평야의 환경·경제·사회적 변화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분석하였다. 그는 전산업시기·준산업시기·산업시기라는 3개의 시간단면을 이용하여 인구, 제도, 시장, 농업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변화를 궁구하였다.⁷⁰⁾

66) 김재완, 「19세기말 낙동강 유역의 염 유통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32(1999).
 67)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민음사, 1984).
 68) 이몽일, 『한국풍수사상사: 시대별 풍수사상의 특성』(명보문화사, 1991).
 69)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 영남지방 비보경관의 양상과 특성』(민속원, 2004).
 70) 류제현, 『한국근대화와 역사지리학: 호남평야』(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옥한석은 관동지방의 향촌문화와 사회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취락의 형성과 문화지역의 성립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와 해방이후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겪은 향촌사회의 재편과정을 살펴보고, 내륙분지·산간고지·해안평야 등 자연적 입지조건에 따른 향촌사회 형성과정의 차이를 고찰하였다.⁷¹⁾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지역역사지리학적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다. 최영준 등은 자연 및 인문환경, 교통과 산업, 취락과 가옥 등을 중심 내용으로 경기도 용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으며,⁷²⁾ 김경수는 영산강 유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간주하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진 경관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지역을 이해하려 하였다.⁷³⁾ 김종혁 역시 하천 유역권의 지역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수륙교통로가 장시망의 발달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구명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장시가 지역문화의 발달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때문에 시장망과 교통망은 문화권 구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⁷⁴⁾

권선정은 충남 금산군의 지역문화를 풍수를 통해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읍치풍수, 풍수와 마을공동체 신앙, 풍수 형국과 금산·금산인 등을 주요 주제로 삼았다.⁷⁵⁾ 그리고 정치영은 독특한 자연 및 인문환경을 가진 지리산지를 하나의 문화지역으로 설정하여, 이 지역에 농민들이 정착하여 농경지를 개간하고 촌락을 형성하는 공간점유과정과 그 후의 변화상을 추적하였다.⁷⁶⁾ 한편 홍금수는 호서지방과 영남지방의 지역체계 형성과 발전을 좌우해 온 환경·행정·인구·경제·교통 등의 요소들을 복원하는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제 요소들이 지역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였다. 그는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적 패턴이 조선시대에 그 대체적인 윤곽이 결정되었으며, 체계의 일부는 일제강

71) 옥한석, 『향촌의 문화와 사회변동: 관동의 역사지리에 대한 이해』(한울, 1994).
 72) 최영준·정치영·홍금수·최원석·이용석, 『용인의 역사지리』(용인시·용인문화원·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73) 김경수, 「영산강 유역의 경관변화 연구: 영산포 시가지 형성과 간척지 개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74) 김종혁,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75) 권선정, 『풍수로 금산을 읽는다』(금산문화원, 2004).
 76) 정치영, 『지리산지의 농업과 촌락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접기를 거치며 왜곡과 변형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역사지역지리의 연구에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⁷⁷⁾ 또한 지역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상업·교통의 3대 원리에 입각해 중심기능의 계층구조를 밝힌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을 원용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역역사지리학적 연구들은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각기 다르지만, 문헌조사와 야외조사를 결합한 연구방법을 사용한다는 점, 단편적인 문화현상의 분석적 설명 보다는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지역성의 파악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하나의 등질적인 문화지역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복수의 문화지역에 대한 비교연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지역의 지역성은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

지리학은 학문으로 성립한 이래, 지역연구를 통해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 지역의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지리학이 항상 추구해 온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중에서도 문화·역사지리학은 오랫동안 지역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 왔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동향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앞으로 지역문화 연구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문화의 성격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의 특성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첫째, 지역문화는 일정한 지역의 생활양식 전체를 의미하므로, 매우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역문화는 각기 다른 지리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역사·전통·전승·예술 등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문화는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지역성이며 지역문화는 지역성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지역문화의 특수성만을 주목하기 쉽다. 그러나 보편성을 함께 지닌 것이 지역문화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지역문화가 세계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다른 곳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문화는 중층적인 다양한 지역적 규모를 가진다. 예를 들면, 지역문화의 범위는 성남의 문화에서부터 경기지방의 문화, 한강유역의 문화, 나아가 한국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역문화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이 작은 부분이 모여 더 큰 부분이 되며, 이것들이 모여 전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성격을 고려할 때,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지역문화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지역문화의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기능적인 접근 보다는 종합적이고 영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 약점으로 지적받기도 하는 지리학의 학문적 특성인 ‘이중적 이원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 그리고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다행히 문화·역사지리학은 계통지리학 가운데 가장 넓은 학문적 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인문지리학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연지리적 지식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특성을 살리면, 지역문화의 전체상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밝힐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역사지리학에서 지역문화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이라는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지역문화 연구를 통한 한국문화의 발전, 나아가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지역문화의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먼저 소지역 단위의 연구를 통해 각각의 지역성을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비교·종합하여 각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각 지역문화의 특수성은 지역 정체성의 확립으로 이어지고, 여러 지역문화에 내재된 보편성은 한국문화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셋째, 중층적이고 다양한 규모를 가진 지역문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층위의 지역 단위에서 연구가

77) 홍금수, 「역사지역지리의 기초연구: 호남지방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6권 2호(2004), 1~35쪽; 홍금수, 「조선 후기: 일제시대 영남지방 지역체계의 변동」, 『문화역사지리』, 17권 2호(2005), 93~125쪽.

이루어져야 한다. 즉 넓은 지역의 밑그림을 그리는 연구와 더불어 좁은 지역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연구의 지역 단위는 지리적 환경과 문화가 함께 고려된 것으로, 일상생활의 중심지를 축으로 형성된 생활권이나 등질지역의 일종인 문화권일 것이다. 그러나 생활권이나 문화권은 구분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문화지리학에서는 문화권의 설정이 지역문화 연구의 최종결과물이자 목표이다. 따라서 이 보다 구분이 용이한 연구 단위로써, 넓은 단위로는 하천유역권을, 보다 좁은 단위로는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군현을 제안한다.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인 군현은 오늘날과 달리 크고 작은 하천유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군현의 주민들은 대개 생활양식과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넷째, 지역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더불어 그 다채로운 양상을 여러 각도에서 포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주체의 개발과 자료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연구가 활발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 문화·역사지리학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던 과거 자연경관의 복원, 자연환경과 지역문화와의 관련성 탐구, 지역문화의 보고인 지명과 언어 연구 등은 앞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또한 전통문화 위주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최근 서구의 신문화지리학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의 생활문화에까지 연구의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 자료 면에서는 지리지·족보·통계·토지대장·가옥대장 등의 문헌자료와 각종 통계류, 고지도·지형도·지적도 등의 지도류 등 기존에 애용해온 자료에서 더욱 폭을 넓혀, 서구의 역사지리학에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계(家計)기록, 구술자료, 신문, 그림, 그리고 시·소설·일기·여행기 등의 문학작품에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자료는 과거의 경관 복원, 지역과 장소의 의미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주제 중심적인 연구와 병행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일정한 지역 내에 분포하는 제 문화 현상에 대한 계통적이고 종합적인 기록, 즉 일종의 ‘지역문화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지리지의 편찬은 동서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이루어졌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각 지역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당시에 편찬된 지리지의 덕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1950년

대 이후 법칙추구적 지리학이 유행하면서 과거의 백과사전식 지리지 편찬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자연히 지리지의 편찬이 쇠퇴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선시대 지리지 편찬의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시·군지의 편찬사업에 문화·역사지리학자들의 참여는 극히 부진하였다. 그러나 지역문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발굴과 확보, 그리고 집대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갈수록 증대되는 지역문화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한다면, 지역문화백과사전의 편찬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앞으로 편찬될 지역문화백과사전의 체제 구성과 서술방식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학문적 가치와 사회적 적실성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 간의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의 자연환경, 지역주민의 생활양식, 그리고 거기에 내재하는 가치체계와 정치·경제·사회적 구조, 지역내부와 외부와의 관련성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최근 지리학 분야 가운데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지역문화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지리적 정보를 컴퓨터로 저장, 분석, 유추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은 문화·역사지리학적 사실을 분석하는 데는 물론, 그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태도이다. 지역문화는 지역민의 숨결 속에 생동하는 문화이며, 지역적인 삶의 방식이다. 따라서 지역문화 연구는 지역민들의 총체적인 삶에 대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향토애는 배제해야 하지만,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문화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대현, 「대관령부근의 산촌의 입지와 형태」, 『只山先生 화갑기념논문집』, 1966, 9-20쪽.
 고석규, 「한국학과 지방학」,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국학연구소 제1회 학술심포지움: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림대학교, 2005.2.16, 73-97쪽.
 권선정, 『풍수로 금산을 읽는다』, 금산: 금산문화원, 2004.
 권용우·안영진, 『지리학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권정화,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기쿠치도시오(저)/윤정숙(역), 『역사지리학방법론』, 서울: 이화, 1995.

김경수, 「영산호 주변의 간석지 개간과정과 경관변화」, 『문화역사지리』 11호, 1999, 73~94쪽.

김경수, 「영산강 유역의 경관변화 연구: 영산포 시가지 형성과 간석지 개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기혁, 「한국 농업지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10, 1991.

김기혁, 「인문지리학의 연구주제」,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서울: 한울, 2001, 204~273쪽.

김덕현, 「씨족촌락의 형성과정과 입지 및 유교문화경관: 안동지방의 사족촌락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0호, 1983, 241~251쪽.

김덕현, 「역사 도시 진주의 경관해석」, 『문화역사지리』 13권 2호, 2001, 63~80쪽.

김부성, 「천수만 지역의 어촌 분포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8호, 1996, 19~36쪽.

김일기, 「곰소만의 어업과 어촌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5, 1988.

김재완, 「19세기말 낙동강 유역의 염 유통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32, 1999.

김종혁,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나도승, 「금강 수운의 변천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논문집』 16집, 공주교육대학, 1980, 73~93쪽.

나도승, 「금강 수운 하항시장권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하항취락 성쇠를 중심으로」, 『논문집』 17집, 공주교육대학, 1981, 91~114쪽.

남궁봉, 「하천유역일대 간척지상의 간척취락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남궁봉, 「한국의 농지개간과정: 김만경평야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3권 2호, 2001, 1~20쪽.

류제현, 「농촌경관의 형태적 연구: 여주, 이천지방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6호, 1979, 96~115쪽.

류제현, 『한국근대화와 역사지리학: 호남평야』,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류제현, 「한국 문화·역사지리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제31권 2호, 1996, 255~267쪽.

류제현, 「문화·역사지리학」,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 서울: 대한민국학술원, 2002, 59~96쪽.

박승규, 「문화지리학의 최근 동향: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7호, 1995, 131~146쪽.

손명철, 「지역연구」,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 서울: 대한민국학술원, 2002, 339~380쪽.

안영진, 「우리나라 지역지리학의 연구 추세와 전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권 2호, 2002, 184~198쪽.

양보경, 「반월면 사리 동족부락에 대한 연구」, 『지리학논총』 7호, 1980, 29~52쪽.

오홍석, 「태백산지의 산촌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9호, 1984, 141~164쪽.

옥환석, 『향촌의 문화와 사회변동: 관동의 역사지리에 대한 이해』, 서울: 한울, 1994.

이기봉, 「신라 왕경의 범위와 구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몽일, 『한국풍수사상사: 시대별 풍수사상의 특성』, 서울: 명보문화사, 1991.

이문중,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이상삼·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이준선, 「강릉지역의 저습지 개간과정」, 『문화역사지리』 10호, 1998, 55~68쪽.

이찬, 「중부지방의 민가 연구 개요」, 『지리학과 지리교육』 4호, 1975, 27~40쪽.

이혜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서울: 문화닷컴, 2001.

이현군, 「조선시대 한성부 도시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희연·최재현,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4호(1998), 560쪽.

이희연, 「세계화시대의 지역연구에서 장소마케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권 2호, 2005, 35~53쪽.

임덕순, 「서울의 수도기원과 발전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장보용, 「제주도 민간의 연구」, 『지리학』 10호, 1974, 13~31쪽.

장보용, 「울릉도 나리동의 투방집 연구」, 『지리학』 16호, 1977, 25~34쪽.

장보용, 『한국의 민가 연구』, 서울: 보진재, 1981.

전종환·류제현, 「영미 역사지리학의 최근 동향과 사회역사지리학」, 『문화역사지리』 제11호, 1999, 169~186쪽.

전종환, 『종족집단의 경관과 장소』, 서울: 논형, 2005.

정치영, 「지리산지의 농경지 개간」, 『문화역사지리』 12호, 2000, 57~76쪽.

정치영, 「천일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농업의 지역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권 2호, 2003, 119~134쪽.

정치영, 『지리산지의 농업과 촌락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조정규, 「광주 충장로의 금남로의 경관변화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최기엽, 「한국 촌락의 지역적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최영준, 「남한강 수운 연구」, 『지리학』 35호, 1987, 49~82쪽.

최영준, 『영남대로: 한국 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최영준, 「강화지역의 해안저습지 간척과 경관변화」,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 30호, 1991, 261~306쪽.

최영준·정치영·홍금수·최원석·이용석, 『용인의 역사지리』, 용인: 용인시·용인문화원·고려대

-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 최영준, 『한국의 길거리: 사라지는 민속경관의 문화지리적 해석』. 서울: 한길사, 2002.
-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 영남지방 비보경관의 양상과 특성』. 서울: 민족원, 2004.
- 최재현,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권 2호, 2005, 1~17쪽.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1984.
- 최협(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7.
- 한국지리연구회(편),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서울: 민음사, 1993.
- 홍금수, 「역사지역지리의 기초연구: 호남지방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6권 2호, 2004, 1~35쪽.
- 홍금수, 「두랑만과 해창만의 간석지 개간」. 『문화역사지리』 16권 3호, 2004, 86~120쪽.
- 홍금수, 「조선후기: 일제시대 영남지방 지역체계의 변동」. 『문화역사지리』 17권 2호, 2005, 93~125쪽.
- 中村和郎・手塚章・石井英也, 『地域と景觀』. 東京: 古今書院, 1991.
- 高橋伸夫・田林明・小野寺淳・中川正, 『文化地理學入門』. 東京: 東洋書林, 1995.
- 日本地誌研究所(편), 『地理學辭典』. 東京: 二宮書店, 1977.
- 村山祐司(편), 『地域研究』. 東京: 朝倉書店, 2003.
- 水津一郎, 『近代地理學の開拓者たち』. 東京: 地人書房, 1988.
- 有蘭正一郎・遠藤匡俊・小野寺淳・古田悦造・溝口常俊・吉田敏弘, 『歴史地理調査ハンドブック』. 東京: 古今書院, 2001.
- 藤岡謙二郎・南出眞助・出田和久・野間晴雄, 『新訂歴史地理』. 東京: 大明堂, 1994.
- 藤原健藏(편), 『地域研究法』. 東京: 朝倉書店, 1997.
- Whittlesey, D., "The Regional Concept and the Regional Method." James, P. E. and Jones, C. F.(ed.),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N. Y.: Syracuse Univ. Press, 1954, pp. 19~68.
- Norton, W., *Explorations in the Understanding of Landscape: A Cultural Geography*. Westport: Greenwood Press, 1989.
- Norton, W., *Historical Analysis in Geography*. New York: Longman, 1984.
- Norton, W., *Cultural Geography: Themes, Concepts, Analy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Jordan-Bychkov, T. G. and Domosh, M., *Human Mosaic*. 9th ed. New York: W. H. Freeman

- and Company, 2003.
- Johnston, R. J., Gregory, D. and Smith, D.(ed.),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Oxford: Blackwell, 1986.
- Baker, A. R. H., "On History and Geography and their 'Bastard' Child Historical Geography, and on its Relationship to Geohistorie and to Geographical History." 『人文地理』 54卷 4号, 2002, pp. 22~34.
- Baker, A. R. H.(ed.), *Progress in Historical Geography*. Newton Abbot: David & Charles, 1972.
- Baker, A. R. H., *Geography and History: Bridging the Div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Martin, G. J. and James, P. E., *All Possible Worlds: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3r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3.
- Bultin, R. A., *Historical Geography: Through the Gate of Space and Time*. London: Edward Arnold, 1993.
- Wagner, P. L. and Mikesell, M. W.,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Hart, J. F., 1982, "The Highest Form of the Geographer's Ar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2, No. 1, 1982, pp.1~29.
- Meinig, D. W., *The Shaping of America: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500 Years of History, Vol. I: Atlantic America, 1492~18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 Meinig, D. W., *The Shaping of America: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500 Years of History, Vol. II: Continental America, 1800~186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Meinig, D. W., *The Shaping of America: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500 Years of History, Vol. III: Transcontinental America, 1850~1915*.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 Meinig, D. W., *The Shaping of America: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500 Years of History, Vol. IV: Global America, 1915~20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국문 요약

이 논문은 문화·역사지리학과 지역문화 연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국내외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문화 연구에서의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리학이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지역, 지역성과 관련해 살펴보고, 문화·역사지리학의 학문적 성격과 지역문화 연구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구의 문화·역사지리학에서 근대지리학이 성립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역문화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지역문화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지역문화 연구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의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기능적인 접근 보다는 종합적이고 영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리학의 ‘이중적 이원성(double dualism)’을 살려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밝힐 수 있는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중층적이고 다양한 규모를 가진 지역문화를 고찰하기 위해서 현재의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층위의 지역 단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더불어 그 다채로운 양상을 여러 각도에서 포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주제의 개발과 자료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지역문화에 대한 주제 중심적인 연구와 병행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분포하는 제 문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지역문화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료의 분석과 연구결과물의 표현에 있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투고일 : 2007. 7. 12.

● 심사완료일 : 2007. 9. 4.

● 주제어(keyword) : 문화지리학(cultural geography), 역사지리학(historical geography), 지역문화(regional culture), 지역성(regionality), 지역역사지리학(regional historical geography)